

낯선 단어

매일 3저문 독서 (매3독) 자료

고육청 편

< 해그퀵 해설 >

VOLUME. 5주차



이용우(그믐달) 국어연구소 편저

[1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인 정보 침해 사례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침해 사례에 맞추어 특별법이 제정되다 보니 법률 간의 중첩이나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1년 ‘개인 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법에 의해 개인 정보가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흔히, 개인 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정도로 생각하여, 개인을 정확히 알아볼 수 없으면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예를 들어 인사와 1팀에 김영수 씨와 박영수 씨가 있는 경우, ‘인사와 1팀 영수 씨’라는 정보는 김영수 씨와 박영수 씨 중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운 정보 역시 개인 정보에 포함된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부연하고 있다. 즉, ‘특정성’을 지닌 정보는 물론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 역시 개인 정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지문, 홍채, 서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은 특정성을 지닌 개인 정보이고, 나이, 직업, 거주지 주소 등은 특정 가능성을 지닌 개인 정보이다. 따라서 ‘인사와 1팀 영수 씨’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 이를 개인 정보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는 특정성을 지닌 정보는 물론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게 되면 언제라도 특정성을 지니게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 정보의 유출이나 악용에 의해 한 개인이 엄청난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까지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 정보를 유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정보 처리 담당자가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안전 조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 처리 담당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입수한 후, 컴퓨터에 아무런 암호 장치 없이 저장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실제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러한 법률적 규제는 개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 ② 하나의 현상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 ④ 기존의 관점을 반박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① [연결논리] 위 글에서는 1문단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배경을 소개하고, 2문단에서 개인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인사와 1팀의 김영수 씨와 박영수 씨가 있는 상황에서 인사와 1팀 영수 씨라는 정보가 개인 정보에 포함된다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3문단에서 개인 정보에는 특정성뿐만 아니라 특정 가능성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앞의 예시를 바탕으로 설명하며 이해를 돕고, 4문단과 마지막 문단에서는 특정 가능성을 지닌 개인 정보도 보호를 받으며, 정보 보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글을 마치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이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② [연결논리] 위 글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이 특정성을 지닌 정보뿐만 아니라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도 보호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법 조항이지 현상이라고 보기는 불분명하며, 이를 바라보는 상반된 견해 또한 확인할 수 없다.

③ [연결논리] 위 글에서 전문가에 해당하는 법조인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도 않았으며, 그들의 견해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연결논리] 위 글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에 대한 기존의 관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알 수 없고, 새로운 관점 또한 제시되지 않았다.

⑤ [연결논리] 1문단에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특별법들이 침해 사례 중심으로 제정되어 법률의 중첩이나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정보 특별법이 나온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여러 대안은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설명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A 상점에서는 적립 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암호화하여 관리하였다.

ㄴ. B 여론 조사 기관에서는 여론 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나이와 거주지 주소를 받아 여론 조사 기관의 컴퓨터에 그대로 저장해 두었다.

ㄷ. C 회사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다가 고객들의 아이디를 외부로 유출하여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 위 사례는 모두 '개인 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 ① ㄱ의 주민등록번호, ㄴ의 나이와 거주지 주소, ㄷ의 아이디는 모두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
- ② ㄱ의 손님, ㄴ의 응답자, ㄷ의 고객들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개인 정보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③ ㄱ의 정보 처리 담당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행위는 '개인 정보 보호법'의 안전 조치 의무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④ ㄷ의 C 회사가 만약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정보 처리 담당자의 과실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
- ⑤ ㄴ과 ㄷ의 정보 처리 담당자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④ [명시적인 근거] 마지막 문단 2-8행 -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정보 처리 담당자가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안전 조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 처리 담당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입수한 후, 컴퓨터에 아무런 암호 장치 없이 저장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실제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지만 개인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이를 <보기>에 적용하면, <보기>의 ㄷ의 C 회사가 ㄷ과는 달리 선지의 진술처럼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는 타인의 개인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C회사의 정보 처리 담당자의 소홀한 행태는 피해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3문단 7-10행 - 지문, 홍채, 서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은 특정성을 지닌 개인 정보이고, 나이, 직업, 거주지 주소 등은 특정 가능성을 지닌 개인 정보이다.

② [근거] 1문단 5-6행 - 결국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1년 '개인 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③ [근거] 마지막 문단 2-7행 -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 정보 처리 담당자가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

야 한다는 안전 조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 처리 담당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입수한 후, 컴퓨터에 아무런 암호 장치 없이 저장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⑤ [근거] 마지막 문단 4-7행 - 이에 따라 정보 처리 담당자가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입수한 후, 컴퓨터에 아무런 암호 장치 없이 저장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보기>의 ㄴ의 정보 처리 담당자는 응답자의 개인 정보를 아무런 암호 장치 없이 컴퓨터에 그대로 저장했다는 점에서, ㄷ의 정보 처리 담당자는 개인 정보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3. 밑글로 보아,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성을 지닌 정보이기 때문이다.
- ②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이기 때문이다.
- ③ 특정성과 특정 가능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 ④ ‘개인 정보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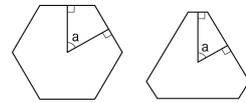
<정답 선택지 해설>
 ② [명시적인 근거] 3문단 6-10행 - 즉, ‘특정성’을 지닌 정보는 물론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 역시 개인 정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지문, 홍채, 서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은 특정성을 지닌 개인 정보이고, 나이, 직업, 거주지 주소 등은 특정 가능성을 지닌 개인 정보이다. + 4문단 3-4행 -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게 되면 언제라도 특정성을 지니게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인사과 1팀에는 김영수 씨와 박영수 씨가 있기 때문에, ‘인사과 1팀 영수씨’라는 진술에서는 둘 중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지 불분명하므로 개인 정보의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지만, 인사과 1팀이라는 정보에서 직업과 부서라는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가 있어서, 이를 다른 정보와 결합시키면 ‘인사과 1팀 영수씨’에서 영수씨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므로, 개인 정보의 특정 가능성이 성립한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이 ㉠의 이유로 적절하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연결논리] ㉠의 이유는 ‘인사과 1팀 영수씨’라는 정보가 특정성이 아닌 특정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③ [연결논리] ㉠의 [연결논리] 참고
 ④ [근거] 4문단 1-3행 - 이처럼 ‘개인 정보 보호법’에서는 특정성을 지닌 정보는 물론 특정 가능성을 지닌 정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⑤ [연결논리] ㉠의 이유는 ‘인사과 1팀 영수씨’라는 정보가 특정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이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무관하다.

[4 ~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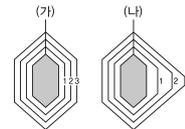
광물은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단위 물질로서 특징적인 결정 구조를 갖는다. 광물의 결정 구조는 그 광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일정하게 배열된 양상이다. 같은 광물일 경우 그 결정 구조가 동일하며, 이러한 결정 구조에 의해 나타나는 규칙적인 겉모양인 결정형(crystal form)도 동일하다. 그런데 실제로 광물들의 결정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덴마크의 물리학자 니콜라우스 스테노는 등산길에서 채집한 수정의 단면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에 궁금증이 생겼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그는 수집한 수정의 단면도를 그려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수정 결정의 모양은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맞닿은 결정면들이 이루고 있는 각은 <그림1>의 a와 같이 항상 일정하다는 ‘면각 일정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림1> 면각 일정의 법칙

스테노는 같은 광물의 결정일 경우 면각이 일정해지는 이유가 ㉡ 결정 내부의 규칙성 때문일 것이라 짐작했다. 당시만 해도 그 규칙성의 이유가 되는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없었다. 그가 죽은 뒤 X선이 발견되고 나서야, 결정 모양이 그 결정을 이루고 있는 내부 원자들의 규칙적인 배열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림2> 결정의 성장 과정(결정의 수직 단면)

그렇다면 같은 종류의 결정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결정에 주입되는 물질의 공급 정도에 따라 결정면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광물의 작은 결정 두 개를, 같은 성분을 가진 용액 속에 매달아 놓았다고 하자. 이때 (가) 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사방에서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나) 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오른쪽에서 더 많이 공급되도록 해 놓으면 (가) 결정은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상적인 모양을 가진 결정(이상결정)으로 성장하는 반면, (나) 결정은 기형적인 모양을 가진 결정(기형결정)으로 성장하게 된다. (나) 결정의 오른쪽 결정면은 다른 결정면들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결정이 성장해 나갈수록 결정면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물질의 공급 환경이 다른 곳에서 성장한 결정들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가)와 (나)는 같은 광물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면각은

서로 같다. 이처럼 같은 광물의 결정은 그 면각이 같다는 사실을 통해 다양한 모양의 결정들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다. 면각 일정의 법칙은 광물의 결정을 판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준으로, 현대 광물학의 ④ 초석이 되었다.

4.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면각 일정의 법칙은 무엇인가?
- ② 면각 일정의 법칙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③ 광물별 결정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④ 결정면의 성장 속도는 결정면의 크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 ⑤ 같은 광물의 결정이 다른 모양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선택지 해설>

③ [연결논리] 2문단에서 스테노가 수정 결정을 채집하여 수정 결정의 모양을 단면도로 그려 비교한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광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위 글에서 언급된 바가 없으므로, 광물별 결정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위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 [근거] 2문단 4-7행 - 그 결과 수정 결정의 모양은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맞닿은 결정면들이 이루고 있는 각은 <그림1>의 a와 같이 항상 일정하다는 '면각 일정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다.
- ② [근거] 3문단 전체
- ④ [근거] 4문단 11-13행 - (나) 결정의 오른쪽 결정면은 다른 결정면들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결정이 성장해 나갈수록 결정면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근거] 4문단 1-3행 - 그렇다면 같은 종류의 결정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결정에 주입되는 물질의 공급 정도에 따라 결정면의 성장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5.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스테노는 ㉠을 추측하기는 했지만 확인하지는 못했다.
- ② 스테노는 ㉠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물리 법칙을 입증했다.
- ③ ㉠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X선이 개발되었다.
- ④ 스테노는 ㉠의 다양한 양상들을 비교하여 분류 체계를 만들어 냈다.
- ⑤ ㉠을 분석한 내용이 면각 일정의 법칙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① [명시적인 근거] 3문단 2-6행 - 당시만 해도 그 규칙성의 이유가 되는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없었다. 그가 죽은 뒤 X선이 발견되고 나서야, 결정 모양이 그 결정을 이루고 있는 내부 원자들의 규칙적인 배열 상태를 반영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스테노가 생존했을 때에는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선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을 추측하기는 했지만 확인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② [연결논리] 스테노 생존 당시에는 ㉠을 확인할 X선이 없어서 추측으로 끝난 것이지, 물리 법칙을 입증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③ [연결논리] 3문단에서 X선의 발견으로 ㉠의 가설을 입증했다는 정보는 알 수 있으나, ㉠을 증명하기 위해 X선이 개발되었는지의 여부는 위 글에서 파악할 수 없다.
- ④ [연결논리] 위 글에서 스테노는 ㉠을 확인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의 다양한 양상을 비교하지 못했을 것이다.
- ⑤ [연결논리] 2문단에서 스테노는 수집한 수정의 단면도를 근거로 이미 면각 일정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은 면각 일정의 법칙을 발견한 이후 그에 대한 이유로 스테노가 추측한 것이다.

6. 윗글을 통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어떤 광물이 성장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평 단면을 보이는 결정이 되었다. (단, 물질 공급 이전의 결정의 초기 모양은 정육각기둥으로 가정하고, 결정의 성장 과정에서 물질 공급을 제외한 다른 요인은 배제한다.)

- ① 지금까지와 같이 물질 공급이 지속된다면, a면은 점점 좁아질 것이다.
- ② 현재의 결정 모양은 a면보다는 b면으로 물질이 더 많이 공급된 결과일 것이다.
- ③ 모든 방향에서 물질이 고르게 공급되었다면, a면과 b면의 면적은 같았을 것이다.
- ④ 현재의 결정이 더 성장하게 되더라도 a면과 b면이 이루는 각 c는 항상 같을 것이다.
- ⑤ 결정의 모양이 달라졌지만,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이 가진 규칙성은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② [명시적인 근거] 4문단 5-13행 - 이때 (가) 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사방에서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나) 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오른쪽에서 더 많이 공급되도록 해 놓으면 (가) 결정은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상적인 모양을 가진 결정(이상결정)으로 성장하는 반면, (나) 결정은 기형적인 모양을 가진 결정(기형결정)으로 성장하게 된다. (나) 결정의 오른쪽 결정면은 다른 결정면들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결정이 성장해 나갈수록 결정면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이를 <보기>에 적용하면, 물질이 고르게 공급되는 경우에 비해 물질이 다른 방향에 비해 더 많이 공급되는 경우 결정면의 성장 속도가 빨라져 결정면이 좁아진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그림에서 a면이 b면보다 결정면이 좁은 것을 확인할 수 있기에 현재의 결정 모양은 b면보다는 a면으로 물질이 더 많이 공급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4문단 5-13행 - 이때 (가) 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사방에서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나) 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오른쪽에서 더 많이 공급되도록 해 놓으면 (가) 결정은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상적인 모양을 가진 결정(이상결정)으로 성장하는 반면, (나) 결정은 기형적인 모양을 가진 결정(기형결정)으로 성장하게 된다. (나) 결정의 오른쪽 결정면은 다른 결정면들보다 성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결정이 성장해 나갈수록 결정면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근거] 4문단 5-11행 - 이때 (가) 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사방에서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나) 결정이 담긴 용액은 물질이 오

른쪽에서 더 많이 공급되도록 해 놓으면 (가) 결정은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이상적인 모양을 가진 결정(이상결정)으로 성장하는 반면, (나) 결정은 기형적인 모양을 가진 결정(기형결정)으로 성장하게 된다.

④ [근거] 2문단 4-7행 - 그 결과 수정 결정의 모양은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맞닿은 결정면들이 이루고 있는 각은 <그림1>의 a와 같이 항상 일정하다는 '면각 일정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다. + 마지막 문단 1-4행 - <그림2>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물질의 공급 환경이 다른 곳에서 성장한 결정들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가)와 (나)는 같은 광물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면각은 서로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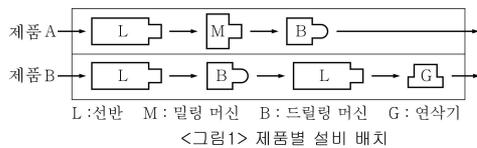
⑤ [근거] 3문단 전체 + 마지막 문단 1-4행 - <그림2>를 통해 설명한 바와 같이 물질의 공급 환경이 다른 곳에서 성장한 결정들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가)와 (나)는 같은 광물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면각은 서로 같다.

7. ㉠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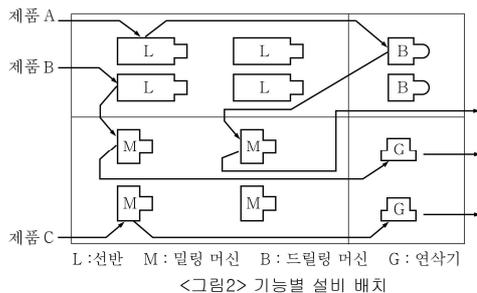
- | | | |
|-------|-------|-------|
| ① 지붕돌 | ② 고임돌 | ③ 버팀돌 |
| ④ 굳은돌 | ⑤ 주춧돌 | |

(8 ~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설비의 효율적인 배치가 중요하다. 효율적인 설비 배치란 자재의 흐름이 정체됨이 없이 원활하도록 하여 자재의 불필요한 운반을 최소화하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적은 노력으로 빠른 시간에 목적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배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설비 배치의 방식은 주로 제품의 종류나 그 수량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다음의 세 가지 방식으로 크게 나뉜다.



① 제품별 배치(Product Layout) 방식은 생산하려는 제품의 종류는 적지만 생산량이 많은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각 제품별로 완성품이 될 때까지의 공정 순서에 따라 설비를 배열해 부품 및 자재의 흐름을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공정의 흐름에 따라 제품이 생산되므로 자재의 운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어 전체 공정 관리가 쉽다. 그러나 기계 고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공정이 지연될 수 있고, 규격화된 제품 생산에 최적화된 설비 및 배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의 규격이나 디자인이 변경되면 설비 배치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② 기능별 배치(Process Layout) 방식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다. 고객의 요구가 다양하고 제품의 디자인이 수시로 변하는 패션 의류나 규격화가 어려운 특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볼 수 있다. 이 방식의 핵심은 같은 기능의 설비들을 한데 모아 배치한다는 것이다. 기능별 배치를 하게 되면 동일한 설비들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어 설비 관리가 쉽고, 기계 고장과 같은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설비에 따라 자재가 이동하므로 자재의 이동 및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제품별 공정이 서로 달라서 전체 공정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룹 배치(Group Layout) 방식은 기능별 배치 방식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설비 배치 방식으로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 방식의 핵심은 형태나 공정이 유사한 제품들을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고, 그러한 제품군들이 공통적으로 거치는 설비들을 하나의 설비

군으로 묶어 소그룹화된 작업장인 셀(Cell)에 배치하는 것이다. 하나의 설비군 안에서 특정 제품군에 속한 모든 제품들이 필요한 공정을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공정 흐름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고, 자재의 이동 및 대기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셀별로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공정의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8.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비 배치 방식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가상 상황을 예로 들어 설비 배치 방식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③ 기존의 설비 배치 방식을 소개한 뒤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④ 특정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설비 배치 방식이 변화해 온 이유를 상술하고 있다.
- ⑤ 각각의 설비 배치 방식이 출현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① [연결논리] 위 글에서는 1문단에서 효율적인 설비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설비 배치 방식을 크게 세 방식으로 나누고, 2, 3, 마지막 문단에서 설비 배치의 세 가지 방식을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이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하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② [연결논리] 위 글에서 각각의 제품군에 적합한 설비 배치 방식은 확인할 수 있으나, 가상의 상황을 예로 드는 부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연결논리] 3문단에서 소개된 기능별 배치 방식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한 마지막 문단의 그룹 배치 방식은 확인할 수 있으나, 새로운 설비 배치 방식의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④ [연결논리] 위 글에서 설비 배치 방식에 대한 특정한 이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연결논리] 위 글에서 각각의 설비 배치 방식이 출현하게 된 시대적 배경을 언급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9.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전체 공정의 관리가 쉬운 반면, ㉡은 전체 공정 관리가 쉽지 않다.
- ② ㉠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반면, ㉡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
- ③ ㉠은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은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 ④ ㉠은 규격화된 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반면, ㉡은 규격화하기 어려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 ⑤ ㉠은 자재의 흐름이 단순한 반면, ㉡은 자재의 흐름이 길고 복잡하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③ [명시적인 근거] 2문단 6-10행 - 그러나 기계 고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공정이 지연될 수 있고, 규격화된 제품 생산에 최적화된 설비 및 배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의 규격이나 디자인이 변경되면 설비 배치 방식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 3문단 6-8행 - 기능별 배치를 하게 되면 동일한 설비들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어 설비 관리가 쉽고, 기계 고장과 같은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기계 고장과 같은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설비 배치 방식은 ㉠이 아닌 ㉡임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2문단 4-6행 - 이 방식을 활용하면 공정의 흐름에 따라 제품이 생산되므로 자재의 운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어 전체 공정 관리가 쉽다. + 3문단 8-10행 - 그러나 설비에 따라 자재가 이동하므로 자재의 이동 및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제품별 공정이 서로 달라서 전체 공정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② [근거] 2문단 1-2행 - 제품별 배치(Product Layout) 방식은 생산하려는 제품의 종류는 적지만 생산량이 많은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 3문단 1-2행 - 기능별 배치(Process Layout) 방식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이다.
 ④ [근거] 2문단 7-9행 - 규격화된 제품 생산에 최적화된 설비 및 배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 3문단 2-4행 - 고객의 요구가 다양하고 제품의 디자인이 수시로 변하는 패션 의류나 규격화가 어려운 특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볼 수 있다.
 ⑤ [근거] 2문단 2-4행 - 각 제품별로 완성품이 될 때까지의 공정 순서에 따라 설비를 배열해 부품 및 자재의 흐름을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3문단 8-9행 - 그러나 설비에 따라 자재가 이동하므로 자재의 이동 및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 공장'의 상황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공장은 다양한 패션 의류를 유행의 변화에 맞춰 디자인을 빠르게 바꿔가며 생산해 왔다. 그런데 유행이 달라져도 꾸준히 많이 팔리는 품목이 있어 재고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A공장은 이러한 품목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설비 배치를 전환하려고 한다.

①	기존의 설비 배치 방식	유행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별 배치 방식을 사용했을 것이다.
②	부분적으로 설비 배치 전환이 필요한 이유	현재의 배치 방식으로는 꾸준히 많이 팔리는 품목의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③	최적의 설비 배치 방식 모색	다품종 생산을 유지하면서도 몇몇 제품을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룹 배치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④	설비 배치 전환을 위한 사전 준비	거치는 공정이 유사한 제품들을 조사해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고, 그에 따라 설비군을 묶어 본다.
⑤	설비 배치 전환의 기대 효과	동일한 설비를 하나의 셀 안에 모아 둘 수 있어 설비 관리가 더 쉬워질 것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 [명시적인 근거] 3문단 6-8행 - 기능별 배치를 하게 되면 동일한 설비들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어 설비 관리가 쉽고, 기계 고장과 같은 문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다. + 마지막 문단 3-7행 - 이 방식의 핵심은 형태나 공정이 유사한 제품들을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고, 그러한 제품군들이 공통적으로 거치는 설비들을 하나의 설비군으로 묶어 소그룹화된 작업장인 셀(Cell)에 배치하는 것이다.
 [연결논리] <보기>의 A공장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패션 의류를 생산하기에 그에 적합한 설비 배치 방식인 기능별 배치를 활용하다가, 특정 제품은 유행이 바뀌었음에도 꾸준한 수요가 있는데 기능별 배치의 특성상 생산성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그룹 배치를 활용하여 다품종 소량 생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 상황을 전제하고 근거에 따르면, 그룹 배치로 설비 배치를 하면 형태와 공정이 유사한 제품들을 그룹으로 묶어, 그 그룹이 공통적으로 거치는 설비들을 하나의 셀에 배치하여 공정의 복잡성을 줄이고 자재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이지, 동일한 설비를 한 곳에 모아 두는 것은 기능별 배치이므로, 설비 배치 전환의 기대 효과가 아니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3문단 2-4행 - 고객의 요구가 다양하고 제품의 디자인이 수시로 변하는 패션 의류나 규격화가 어려운 특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볼 수 있다.
 ② [근거] 3문단 8-10행 - 그러나 설비에 따라 자재가 이동하므로 자재의 이동 및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제품별 공정이 서로 달라서 전체 공정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 마지막 문단 7-11행 - 하나의 설비군 안에서 특정 제품군에 속한 모든 제품들이 필요한 공정을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공정 흐름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고, 자재의 이동 및 대기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설별로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공정의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③ [근거] 마지막 문단 1-3행 - 그룹 배치(Group Layout) 방식은 기능별 배치 방식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설비 배치 방식으로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④ [근거] 마지막 문단 3-7행 - 이 방식의 핵심은 형태나 공정이 유사한 제품들을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고, 그러한 제품군들이 공통적으로 거치는 설비들을 하나의 설비군으로 묶어 소그룹화된 작업장인 셀(Cell)에 배치하는 것이다.

[11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노동을 제공하면 으레 그에 합당한 크기의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 만족을 경험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불만족을 경험한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보상의 크기가 합당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정성’이다. 공정성은 크게 ‘배분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기업의 이윤에서 임금으로 얼마를 배분받느냐가 ‘배분 공정성’에 관한 문제라면, 얼마의 임금을 배분받을지 결정되기까지의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는 ‘절차 공정성’의 문제이다.

배분 공정성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 업적 등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보상이 합당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타인이 받은 보상과 비교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성 이론을 주창했던 아담 스는 다음의 산술식을 활용해 설명했다.

$$\frac{\text{산출}(P)}{\text{투입}(P)} = \frac{\text{산출}(O)}{\text{투입}(O)} \quad (P=\text{자신}, O=\text{타인})$$

이 산술식에서 ‘투입’은 개인의 노력, 업적, 기술, 연령, 교육, 경험 등을 가리키며, ‘산출’은 조직이 개인에게 주는 보상으로 임금, 후생 복지, 승진, 지위, 권력 등을 포함한다. 아담 스는 개인이 이러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 그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을 지각해 자신이 배분받은 것에 만족하는 반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불공정성을 지각해 불만이나 죄책감을 느낀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공정성과 불공정성의 지각은 개인의 동기 부여에 영향을 미친다.

배분 공정성은 ‘내부 공정성’과 ‘외부 공정성’으로 구분된다. 내부 공정성은 조직 내부의 공정성으로 조직의 직무·직능·근속 및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제도를 잘 갖춤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확보하는 것이다. 내부 공정성의 확보는 개인의 만족과 그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부 공정성은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 받는 보상 수준이 다른 조직의 구성원이 받는 보상 수준에 비해 공정한가에 관한 것이다. 외부 공정성의 확보는 조직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절차가 공정했는지에 관한 ㉠ 절차 공정성은 배분 공정성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면 그 결정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성이 높아진다. 절차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상 수준의 결정에 활용되는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고충 처리 절차나 이의 제기 절차가 있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배분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배분을 통해 보상을 받는 개인들의 윤리·도덕 기준에 부합되게 이루어지면 절차 공정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배분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각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행동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11. 밑글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투입에 비해 산출이 클수록 '배분 공정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 ②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 '배분 공정성'을 지각할 수 있다.
- ③ 자신의 보상이 합당한지를 판단할 때 '공정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 ④ 구성원의 '공정성'에 대한 지각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관련이 있다.
- ⑤ '외부 공정성'은 조직의 인력 수급과 대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① [명시적인 근거] 3문단 3-7행 - 아담스는 개인이 이러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 그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을 지각해 자신이 배분받은 것에 만족하는 반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불공정성을 지각해 불만이나 죄책감을 느낀다고 보았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자신의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과 타인의 투입 대비 산출이 유사해질수록 배분 공정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지, 단지 투입 대비 산출이 크다고 배분 공정성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는 위 글에서 알 수 없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② [근거] 3문단 3-7행 - 아담스는 개인이 이러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해 그 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을 지각해 자신이 배분받은 것에 만족하는 반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불공정성을 지각해 불만이나 죄책감을 느낀다고 보았다.
 ③ [근거] 1문단 3-5행 - 그런데 자신이 받은 보상의 크기가 합당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정성'이다.
 ④ [근거] 마지막 문단 1-3행 - 배분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지각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행동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⑤ [근거] 4문단 8-9행 - 외부 공정성의 확보는 조직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 밑글로 보아,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Γ은행과 Λ은행에 동시에 합격한 Υ씨는 동일한 일을 해도 Λ은행이 Γ은행보다 평균 임금이 높고 후생 복지도 좋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Γ은행에 입사했다. Γ은행이 Λ은행보다 선진화된 인사 고과 시스템을 갖추어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가 Λ은행보다 잘 갖추어져 있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승진을 시켜주기 때문이었다.

- ① 직원들의 평균 임금과 후생 복지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Λ은행보다 Γ은행의 '외부 공정성'이 더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 같다.
- ② 성과에 대한 보상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Γ은행보다 Λ은행의 '내부 공정성'이 더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Υ씨가 Γ은행을 선택한 것은 평균 임금보다 후생 복지를 더 중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
- ④ Γ은행은 선진화된 시스템을 통해 업무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Λ은행보다 '절차 공정성'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⑤ Υ씨가 근속 연수와 상관없는 승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 Γ은행을 선택한 것은 '배분 공정성'보다 '절차 공정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야.

<정답 선택지 해설>
 ④ [명시적인 근거] 4문단 2-4행 - 내부 공정성은 조직 내부의 공정성으로 조직의 직무·직능·근속 및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제도를 잘 갖추어서 공정성을 유지·확보하는 것이다. + 5문단 1-2행 - 보상을 결정하는 절차가 공정했는지에 관한 절차 공정성은 배분 공정성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라 <보기>를 분석하면, Γ은행은 Λ은행보다 선진화된 인사 고과 시스템, 업무 평가의 공정성, 성과급 제도를 잘 갖추고 있으므로 내부 공정성을 더 많이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고, 절차 공정성은 배분 공정성의 전제가 되므로, 배분 공정성에 속하는 내부 공정성을 Γ은행이 Λ은행보다 더 많이 확보한 것은 Γ은행은 Λ은행보다 절차 공정성을 더 많이 확보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4문단 5-7행 - 외부 공정성은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 받는 보상 수준이 다른 조직의 구성원이 받는 보상 수준에 비해 공정한가에 관한 것이다.
 ② [근거] 4문단 2-4행 - 내부 공정성은 조직 내부의 공정성으로 조직의 직무·직능·근속 및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하는 제도를 잘 갖추어서 공정성을 유지·확보하는 것이다.
 ③ [연결논리] <보기>에 따르면, Λ은행은 Γ은행보다 평균임금과 후생복지 모두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⑤ [연결논리] 정답의 [연결논리]에서도 언급했듯이, Γ은행은 Λ은행보다 내부 공정성이 높고, 절차 공정성은 배분 공정성에 속하는 내부 공정성의 전제이므로, Υ씨는 배분 공정성보다 절차 공정성 가운데 어느 것

을 더 중시했다고 볼 수 없다.

13.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때 개인의 주관이 많이 개입된다는 말이로군.
- ② '배분 공정성' 없이 '절차 공정성'만 확보되면, '공정성' 확보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말이로군.
- ③ 개인들의 윤리·도덕 기준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배분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로군.
- ④ '배분 공정성'이 '절차 공정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된다는 말이로군.
- ⑤ 배분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면, 그 결정에 대해 '공정성'을 지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말이로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⑤ [명시적인 근거] 5문단 2-4행 -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면 그 결정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성이 높아진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배분이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한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면, 그 결정에 대해 사람들이 그것을 공정하다고 여기고 기꺼이 받아들여 배분 공정성이 확보되므로, 절차 공정성이 배분 공정성의 전제가 됨을 알 수 있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연결논리] 절차 공정성이 확보된 보상의 배분을 사람들이 공정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다는 판단과 개인의 주관 개입과의 관계는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② [연결논리] 절차 공정성이 배분 공정성을 이루는 전제 조건임은 확인할 수 있으나, 배분 공정성이 없는 절차 공정성만 확보된 경우에 대한 것은 위 글에서 알 수 없다.

③ [연결논리] 5문단에서 보상의 배분을 받는 개인들의 윤리·도덕 기준에 부합한 배분이 이루어지면 절차 공정성이 극대화되어 배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것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위 글에서 알 수 없다. 물론 절차 공정성이 배분 공정성의 전제가 되지만, 직무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내부 공정성의 경우와, 타 조직의 보상 수준과의 공정성을 고려하는 외부 공정성의 경우처럼, 개인의 윤리·도덕 기준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배분의 절차도 절차 공정성이 확보되면 배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④ [연결논리] 절차 공정성은 배분 공정성의 전제이므로, 절차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배분 공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배분 공정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다.

[14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윤리적 가치이다. 이러한 가치의 실천은 동기에서 비롯한다. 이 지점에서 윤리학의 핵심 과제 두 가지가 도출된다. 하나는 도덕 원칙이나 규칙 혹은 윤리적 행위의 가치를 입증하는 정당화 과제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도록 행위를 유인하는 동기화 과제이다. 정당화 과제는 무엇이 정당하며, 왜 정당한가를 따지는 일이며, 동기화 과제는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인도하고 유인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일이다. 이 둘은 윤리학의 쌍두마차인데, 시대에 따라 윤리학이 주력한 과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

근대 이전의 윤리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정당화의 기반을 특정한 형이상학에 두고 있다. 또한 이 시대의 윤리학은 특정한 공동체를 현실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그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한 정치적, 법적인 관행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은 이 같은 전통과 관행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의거한 규범과 윤리를 전제로 한 동기화에 주력하였다.

윤리학이 정당화 과제보다 동기화 과제에 전념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윤리 체계는 관행이나 관습에 안주하면서 교조적인 모습을 띠게 되고, 현상 유지를 위한 보수화, 권위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일반적으로 질서정연한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정당화에 대한 요구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하지만 안정된 공동체가 해체되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에는 그 질서를 유지할 새로운 규범 체계에 대한 정당화 과제가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개인들을 서로 묶어 주고 그들간의 갈등을 완화해 주던 유대가 점차 약화되고, 상업적인 인간관계가 점차 늘어났다. 그에 따라 ① 개인주의가 우세해짐으로써 정당화 요구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근대 이후의 윤리학이 의무, 옳음, 책무 등에 대한 정당화 과제에 골몰해 온 결과, 윤리적 삶에서 행위의 동기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되었다.

어떠한 도덕적 행위도 정당화 측면과 동기화 측면을 갖는 만큼 윤리학은 모든 도덕적 영역에서 정당화와 동기화 과제를 균형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때 모든 덕행은 언제나 정당화의 관점에서 반성되고 성찰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의무는 현실성 있는 동기화의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14. 위 글의 표제와 부제가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덕적 편향성이 나타나는 원인 분석
 - 각 시대별 윤리학적 논쟁을 중심으로
- ② 가치와 동기의 관계에 대한 비판과 성찰
 - 보편적 윤리학의 한계를 중심으로
- ③ 교조적인 윤리학이 등장한 배경 설명
 - 윤리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을 중심으로
- ④ 윤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
 - 기존 윤리학이 지닌 편향성의 분석을 중심으로
- ⑤ 윤리학과 인간의 삶 사이의 상관관계 고찰
 - 도덕적 가치의 변천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정답 선택지 해설>

④ [연결논리] 위 글은 1문단에서 윤리학의 핵심 두 과제인 동기화와 정당화를 소개한 후 간략히 설명하며, 2문단에서는 동기화가 우세했던 근대 이전의 윤리학, 3문단에서는 동기화에 편향되어 나타난 윤리 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당화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소개한 후, 4문단에서는 정당화가 우세했던 근대 이후의 윤리학과 정당화에 편향되어 나타난 윤리 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윤리학의 두 과제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내며 글을 마치고 있으므로, 선지의 표제와 부제가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적절하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연결논리] 위 글에서 도덕적 편향성이 나타나는 원인 분석은 확인할 수 있으나, 시대별 윤리학적 논쟁은 파악할 수 없다.

② [연결논리] 위 글에서 가치와 동기의 관계에 대한 비판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동기화와 정당화에 치우친 윤리학의 흐름은 알 수 있으나 보편적 윤리학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연결논리] 3문단에서 윤리학이 동기화에 편향되면 윤리 체계가 교조화된다고는 하였으나, 윤리에 대한 동서양의 관점을 중심으로 위 글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⑤ [연결논리] 특정 공동체에 기반을 두었던 삶에서 공동체의 해체 상황이 되면서 윤리학의 과제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윤리학과 인간의 삶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위 글의 중심 내용은 그 상관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윤리학이 편향되어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는 균형잡힌 윤리학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임진왜란 이후 조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유교적 윤리의식은 땅에 떨어졌다. 이에 조선의 임금인 광해군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편찬하여 각 지방에 배부하였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임진왜란 중에 목숨을 바친 사람을 비롯하여 신라, 고려, 조선 시대의 충신, 효자, 열녀의 행적을 수록하고, 그 덕행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광해군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통해 충, 효, 예라는 유교적 이념으로 백성들을 교화하고 혼란스러운 민심을 수습하여 피폐해진 국민 도의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 ① 조선 사회의 윤리 체계는 정당화의 기반을 유교적 이념에 두고 있었군.
- ② 광해군 때는 전통적 권위에 의거한 규범을 전제로 한 백성들의 동기화가 시도되었군.
- ③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간행한 것은 동기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군.
- ④ 충, 효, 예는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한 조선 시대 윤리 체계의 핵심 개념이었겠군.
- ⑤ 충신, 효자, 열녀의 덕행을 찬양한 것은 새로운 윤리 체계에 대한 정당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⑤ [명시적인 근거] 2문단 5-7행 -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은 이 같은 전통과 관행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의거한 규범과 윤리를 전제로 한 동기화에 주력하였다.

[연결논리] <보기>에 따르면, 임진왜란 이후 혼란스러워진 공동체를 수습하고 권위를 상실한 유교 윤리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유교적 가치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을 수록해 덕행을 찬양하는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편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근거에 따르면, 신라부터 고려, 그리고 임진왜란 이전의 조선 시대까지 유교적 가치를 잘 따라왔다는 전통에 기대어 기존의 유교적 윤리 체계에 대한 동기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신, 효자, 열녀의 덕행을 찬양한 것이므로, 새로운 윤리 체계에 대한 정당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2문단 1-2행 - 근대 이전의 윤리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정당화의 기반을 특정한 형이상학에 두고 있다.

② [근거] 2문단 5-7행 -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은 이 같은 전통과 관행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의거한 규범과 윤리를 전제로 한 동기화에 주력하였다.

③ [근거] 3문단 1-4행 - 윤리학이 정당화 과제보다 동기화 과제에 전념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윤리 체계는 관행이나 관습에 안주하면서 교조적인 모습을 띠게 되고, 현상 유지를 위한 보수화, 권위화의 길을 걷게 된다.

[연결논리] <보기>의 상황은 임진왜란으로 안정된 공동체가 흔들린 것은 맞으나, 조선이라는 나라가 바뀌거나 정치, 윤리 체계가 바뀐 것은 아니기에 공동체의 해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근거에 따르면,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간행한 것은 기존 유교적 질서

를 현상유지하려는 동기화를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근거] 2문단 2-5행 - 또한 이 시대의 윤리학은 특정한 공동체를 현실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그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한 정치적, 법적인 관행에 의존하게 된다.

16. ㉠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윤리학에서 개인의 실천을 중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 ② 기존 윤리학에서 동기화 과제보다 정당화 과제를 더 중시했기 때문에
- ③ 사람들이 윤리적 행위에서 의무보다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 ④ 특정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윤리학과 그에 관련된 윤리 체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 ⑤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윤리학과 그에 관련된 윤리 체계 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정답 선택지 해설>

④ [명시적인 근거] 3문단 5-8행 - 하지만 안정된 공동체가 해체되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에는 그 질서를 유지할 새로운 규범 체계에 대한 정당화 과제가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다.

[연결논리] 근거에 따르면, 공동체의 해체로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윤리학과 윤리 체계가 힘을 잃게 되고, 공동체의 전통이나 관행과 같은 속박에서 벗어나는 개인주의 사상은 이를 가속화시키므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기존 질서를 현상 유지하는 동기화로는 역부족이고 새로운 규범 체계가 왜 정당인지 정당화를 통해 이들을 납득시켜야 이들이 새 규범 체계에 따르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로는 선지의 진술이 적절하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 [근거] 1문단 6-8행 - 정당화 과제는 무엇이 정당하며, 왜 정당한가를 따지는 일이며, 동기화 과제는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인도하고 유인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일이다.

② [연결논리] 기존 윤리학에서는 동기화 과제를 더 중시했다.

③ [연결논리] 위 글에서 개인주의의 우세와 사람들이 윤리적 행위에서 의무보다 동기를 중요하게 여긴 여부와는 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⑤ [연결논리]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윤리학과 윤리 체계를 유지하는 기반인 공동체가 해체되고, 새로운 공동체의 등장과 개인주의의 우세로 더 이상 기존의 윤리학과 윤리 체계 유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 체계에 대한 정당화 요구가 급증한 것이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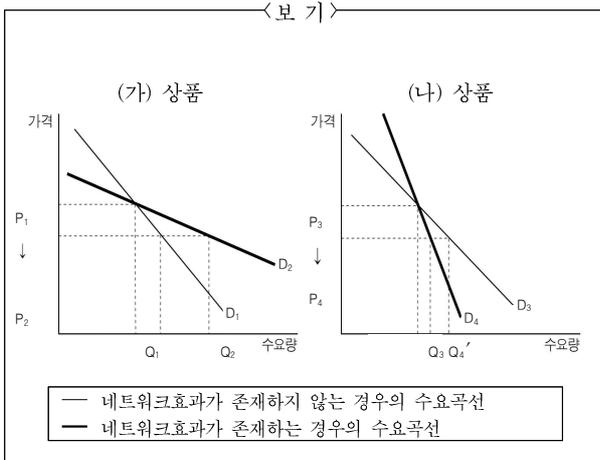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라고 말한다. 이러한 네트워크효과에는 유행효과와 속물효과가 있다.

어느 한 상품이 유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상품을 구입하려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것을 유행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유행효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A 게임기의 가격이 20만 원일 때 5천 대, 15만 원일 때 6천 대로 수요량이 변한다고 한다. 그런데 유행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20만 원이었던 A 게임기의 가격이 15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게임기의 수요량이 6천 대가 아닌 8천 대로 늘어났다고 하자. 이는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게임기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이들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소비가 창출된 결과, 수요량의 증가폭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행효과는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이나 연예인을 동경하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어떤 상품을 소비할 때 소수만이 소유하기를 바라는 심리가 ㉠ 깔려 있는 경우, 그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 그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 이렇게 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구입하지 않게 되는 것을 속물효과라 한다. 예를 들어 속물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B 손목시계 가격이 3백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1천 개 더 늘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속물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B 손목시계의 가격이 1백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수요량의 증가폭이 5백 개에 그쳤다고 하자.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어 남들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심리가 충족되지 못해 그 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사람이 생겨나므로, 결과적으로 수요량의 증가폭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속물효과는 상품의 희소성이 약화될 때 나타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높은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 할인이나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자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들과 독립적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의 두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의 수요가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 <보기>는 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의 수요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1번과 2번의 두 물체에 답하시오.



17. 윗글과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상품의 가격이 P1에서 P2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Q1에서 Q2로 증가했다면, 유행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겠군.
- ② (가) 상품의 가격이 P1에서 P2로 하락할 때 유행효과가 존재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Q1에서 Q2'만큼 수요량이 더 증가하겠군.
- ③ (나) 상품의 가격이 P3에서 P4로 하락할 때 속물효과가 존재한다면, 수요량은 Q3에서 Q5로 변화하겠군.
- ④ (나) 상품의 가격이 P3에서 P4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Q4가 아니라 Q5로 된다면, 타인과 차별화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 것이겠군.
- ⑤ D1과 D2, D3과 D4를 각각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수요가 개인의 수요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연결논리] 가격이 P1에서 P2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Q1에서 Q2 '만큼'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Q2'-Q1만큼 수요량이 증가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연결논리] P1에서 P2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Q1에서 Q2로 증가했다면, 네트워크효과 발생하지 않은 그래프의 값이다. 즉, 유행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③번 [명시적인 근거] 3문단 6~13행 '예를 들어 속물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B 손목시계 가격이 3백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1천 개 더 늘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속물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B 손목시계의 가격이 1백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수요량의 증가폭이 5백 개에 그쳤다고 하자.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어 남들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심리가 충족되지 못해 그 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사람이 생겨나므로, 결과적으로 수요량의 증가폭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연결논리] 속물효과에 의해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증가폭이 감소하였다.
 ④번 [연결논리] ③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Q3에서 Q4로 수요가 증가했다면, 이는 네트워크효과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그 수요 증가폭이 작아졌으므로 (Q5) 속물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⑤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1~3행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들과 독립적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의 두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의 수요가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18. 다음은 <보기>의 (가), (나) 상품에 대한 판매 전략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품	판매 전략
(가)	상품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무료 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사람들의 구매를 촉진한다. ①
	유명인들이 해당 상품을 방송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줌으로써 상품의 소비를 대중적으로 확대시킨다. ... ②
(나)	가격 경쟁보다는 해당 상품의 특성과 이미지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③
	해당 상품의 수량을 조절하여 상품의 시장 판매량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④
	해당 상품과 어울리는 상품을 묶음으로 구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상품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줄인다. 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연결논리] 지문에 근거했을 때, '속물효과'가 발생하는 상품에 대해 상품을 묶음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 수 없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연결논리] (가)상품은 유행효과가 발생하는 상품으로, 이 상품이 유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상품을 구입하려는 양상이 나타나는 상품이다. 그러므로 무료 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사람들의 구매를 촉진할수록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다.
 ②번 [명시적인 근거] 2문단 12~14행 '이러한 유행효과는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이나 연예인을 동경하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연결논리] (가)상품은 유행효과가 발생하는 상품이므로 유명인(연예인)의 방송에서의 상품 사용이 적절한 효과를 거둘 것이다.
 ③번 [명시적인 근거] 3문단 10~12행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어 남들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심리가 충족되지 못해 그 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사람이 생겨나므로~'
 [연결논리] (나)상품은 속물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으로 가격을 낮추는 것 보다는 해당 상품의 특성과 이미지를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번 [명시적인 근거] 3문단 13~16행 '이러한 속물효과는 상품의 희소성이 약화될 때 나타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높은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 할인이나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자제하게 된다.'

19.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네트워크효과의 개념은 무엇인가?
- ② 유행효과가 유발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③ 유행효과는 어떤 소비자에게서 잘 나타나는가?
- ④ 속물효과에 따라 수요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⑤ 속물효과를 발생시키는 심리적 배경은 무엇인가?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연결논리] 유행효과가 유발하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은 지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명시적인 근거] 1문단 1~2행
 ③번 [명시적인 근거] 2문단 12~14행
 ④번 [명시적인 근거] 3문단 10~13행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어 남들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심리가 충족되지 못해 그 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사람이 생겨나므로, 결과적으로 수요량의 증가폭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⑤번 [명시적인 근거] 3문단 10~13행
 [연결논리] 속물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남들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심리' 때문이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자학과 양명학은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인 ‘이(理)’를 탐구한다. 하지만 주자학의 ‘이’는 ‘만물의 본성이 곧 이치’라는 ‘성즉리(性即理)’이며, 양명학의 ‘이’는 ‘내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即理)’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주자학의 ‘이’는 인간 주체와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늘의 이치’이다. 만물이 존재하는 근원적인 원리로서의 ‘이’는 하나이지만 각각의 사물에는 저마다의 ‘이’가 개별적으로 담겨 있다. 즉 만물에 있는 개별적인 ‘이’는 모두 다르지만, 근원적인 ‘이’는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하늘의 이치’인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물에 들어 있는 ‘이’를 탐구한 다음,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므로 주자학적 전통은 개별적인 ‘이’ 보다 하늘의 이치인 ‘이’에 대한 예의법도를 중시한다.

지방마다 절도사를 두어 행정과 군 통치권을 맡겼던 당나라는 왕실의 힘이 약화되면서 절도사들의 반란이 잦아졌고 그 결과 멸망했다. 이에 송나라에서는 군주에게 의리(義理)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송나라 지식인들은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를 ‘현실에서의 의리’로 보았고, 주자학적 전통을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통치 원리로 삼았다.

양명학을 창시한 ‘왕수인’은 ‘이’가 주체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마음의 본체는 ‘양지(良知)’이며, 양지는 곧 하늘의 이치라고 하였다. 그의 철학은 인간 주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사람은 하늘의 이치인 양지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양지는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타고난 도덕적 자각 능력이다. 그래서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에서 벗어나서 양지를 회복하는 과정을 강조했다. 자신의 양지를 보존하려는 마음, 자신에게 충실하고 진실하여 그 스스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과 이치가 합일된 경지이자 인간 자신이 타고난 도덕적 자각이 완성된 상태인 ‘치양지(致良知)’에 이르게 된다.

명나라 중기 이후 지배 세력이 농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 농민 봉기가 확산되었다. 당시 농민의 구호는 ‘혼돈의 하늘을 열자’였다. 이는 주자학에서 말하는 정해진 하늘의 이치에 대한 부정이었으며, 주자학 대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라는 시대적 요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수인은 하늘이 정한 이치가 인간 주체와 분리되는 철학으로는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양명학은 개인과 자아라는 근대적 의식이 싹트고 전통 도덕으로 개인 의지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대두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결국 주자학과 양명학은 새로운 질서의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궁극적인 앎인 ‘이’에 관한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20. 윗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주자학에서 설정하는 ‘이’와 ‘기’의 관계
- ② 명나라 중기 이후 농민 봉기가 확산된 이유
- ③ 주자학에서 제시하는 만물의 궁극적인 이치
- ④ 양명학에서 주장하는 ‘양지’가 회복된 상태
- ⑤ 송나라에서 ‘현실에서의 의리’를 강조하게 된 배경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연결논리] 이 지문은 주자학과 양명학에의 ‘이’에 대한 견해를 다루는 지문이다. 주자학에서 설정하는 ‘이’와 ‘기’의 관계는 찾아볼 수 없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②번 [명시적인 근거] 5문단 1~2행 ‘명나라 중기 이후 지배 세력이 농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 농민 봉기가 확산되었다.’
 ③번 [명시적인 근거] 2문단 1~2행 ‘주자학의 ‘이’는 인간 주체와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늘의 이치’이다.’
 ④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7~11행 ‘자신의 양지를 보존하려는 마음, 자신에게 충실하고 진실하여 그 스스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과 이치가 합일된 경지이자 인간 자신이 타고난 도덕적 자각이 완성된 상태인 ‘치양지(致良知)’에 이르게 된다.’
 ⑤번 [명시적인 근거] 3문단 1~4행 ‘지방마다 절도사를 두어 행정과 군 통치권을 맡겼던 당나라는 왕실의 힘이 약화되면서 절도사들의 반란이 잦아졌고 그 결과 멸망했다. 이에 송나라에서는 군주에게 의리(義理)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다.’

21. <보기>에 대해 '왕수인'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白紙)와 같은 것으로 어떠한 생득적 관념도 갖고 있지 않다. 인간은 사물에 대한 감각적 지각과 경험을 통해 지식과 사물의 이치를 획득한다.

- ① 치양지를 위해서는 경험이 아니라 각각의 사물에 들어 있는 이치를 탐구한 다음 만물의 근원적인 원리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 ②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감각적 지각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먼저 주체와 분리된 '이'를 자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③ 경험을 통한 지식의 획득보다 감각적 지각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획득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④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경험을 우선시하기보다 만물의 본성이 곧 이치라는 깨달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 ⑤ 인간의 마음은 본래부터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양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답 선택지 해설>

- ⑤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1~3행 '양명학을 창시한 '왕수인'은 '이'가 주체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마음의 본체는 '양지(良知)'이며, 양지는 곧 하늘의 이치라고 하였다. 그의 철학은 인간 주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사람은 하늘의 이치인 양지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연결논리] <보기>에서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白紙)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왕수인'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묻는 문제이므로, '양명학적 입장'에 대한 설명이 답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 ①번 [명시적인 근거] 2문단 5~7행 '그런데 인간이 '하늘의 이치'인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물에 들어 있는 '이'를 탐구한 다음,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연결논리] 1번 선지는 '주자학적 입장'에 관한 설명이다.
②번 [명시적인 근거] 2문단 1~2행 '주자학의 '이'는 인간 주체와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늘의 이치'이다.
[연결논리] 2번 선지의 '먼저 주체와 분리된 '이'를 자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자학적 입장'이다.
③번 [연결논리] '왕수인'이 경험을 통한 지식의 획득과, 감각적 지각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획득하는 것 중 무엇을 우선시 했는지 지문에서 찾을 수 없다.
④번 [명시적인 근거] 1문단 2행 '하지만 주자학의 '이'는 '만물의 본성이 곧 이치'라는 '성즉리(性即理)'이며~'
[연결논리] '만물의 본성이 곧 이치'라는 깨달음도 '주자학적 입장'에 관한 설명이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이유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양명학은 왕수인 이후에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주자학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배 이념인 관학(官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고 이어졌다.

- ① 양명학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리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 ② 주자학이 군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여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 ③ 양명학은 양지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사물의 본성을 탐구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 ④ 주자학은 예의법도를 중시하여 도덕적 자각 능력의 수양 측면에서 양명학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 ⑤ 근대적 의식에 부합하는 주자학의 이념이 양명학에 비해 궁극적인 이치를 탐구하는데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정답 선택지 해설>

- ②번 [명시적인 근거] 3문단 3~6행 '이에 송나라에서는 군주에게 의리(義理)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송나라 지식인들은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를 '현실에서의 의리'로 보았고, 주자학적 전통을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 통치 원리로 삼았다.'
[연결 논리] 주자학은 군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였다. <보기>에서, '주자학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배 이념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고 이어졌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군주에 대한 의리'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면은 피로가 누적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잠을 자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수면은 심신의 회복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세익스피어는 수면을 '자연의 부드러운 간호사'라고 했다. 수면은 '비-REM수면'과 급속한 안구 운동을 동반하는 'REM(Rapid Eye Movement)수면'이 교대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비-REM수면 이후 REM수면이 진행된다. 비-REM수면은 4단계로 진행되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 수면이다. 이러한 수면의 양상은 수면 단계에 따라 달리 측정되는 뇌파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막 잠이 들기 시작하는 1단계 수면 상태에서 뇌는 '세타파'를 내보낸다. 세타파란 열린 잠을 자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로, 이때는 언제든 깰 수 있을 정도의 수면 상태이다. 이 단계는 각성 상태에서 수면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로 뇌파가 각성 상태보다 서서히 느려진다.

2단계 수면에서는 세타파 사이사이에 '수면 방추'와 'K-복합체'라는 독특한 뇌파의 모습이 보인다. 수면방추는 세타파 중간마다 마치 실이 감겨 있는 것처럼 촘촘한 파동의 모습인데, 분당 2~5번 정도 나타나며 수면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K-복합체는 2단계 수면에서 나타나는데, 세타파 사이사이에 아래위로 갑자기 빠르게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실험에 의하면 K-복합체는 수면 중 갑작스러운 소음이 날 때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이것은 잠자는 사람이 깨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여 깊은 수면을 유도함을 알 수 있다.

깊은 수면의 단계로 진행되면 뇌파 가운데 가장 느리고 진폭이 큰 '델타파'가 나타난다. 3단계와 4단계는 '델타파'의 비중에 따라 구별된다. 보통 델타파의 비중이 20~50%일 때는 3단계로, 50%를 넘어서 더 깊은 수면에 빠지는 상태가 되면 4단계로 본다. 때문에 4단계 수면은 '서파수면(slow-wave-sleep)'으로도 알려져 있다.

서파수면은 대뇌의 대사율과 혈류량이 각성 수준의 75%까지 감소되는 깊은 잠의 상태이고, ㉠ REM수면은 잠에 빠져 있음에도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때문에 서파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을 깨우면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며 혼란스러워 하고, REM수면 상태의 사람을 깨우면 금세 각성 상태로 돌아온다.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을 정도의 비-REM수면은 온전한 휴식을 통해 진정한 심신의 회복을 가져다 준다. 자면서도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REM수면은 인간의 뇌의 활동이나 학습에도 도움을 준다. 비-REM수면이든 REM수면이든 문제가 생기면 인간의 활동은 영향을 받게 된다.

* 각성 상태: 눈을 뜨고 깨어 있는 상태

2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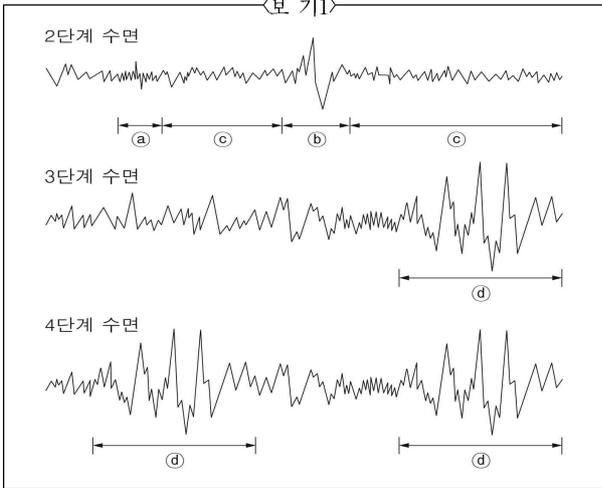
- ① 구체적 수치를 통해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 ② 대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③ 현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다.
- ④ 비유적 진술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 의문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연결논리]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을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명시적인 근거] 지문 전체에서 구체적인 수치(비율)을 제시한다.
 ②번 [명시적인 근거] 1문단 1~2행, '수면은 피로가 누적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잠을 자는 상태를 의미한다.' 2문단 2~3행 '세타파란 열린 잠을 자는~ 상태이다.' 등등
 ③번 [명시적인 근거] 2문단, 3문단, 4문단 '1단계 수면 상태에서는~' '2단계 수면에서는~' '깊은 수면의 단계로 진행되면 뇌파 가운데 가장 느리고 진폭이 큰 '델타파'가 나타난다. 3단계와 4단계에서는~'
 ④번 [명시적인 근거] 1문단 3~4행, '세익스피어는 수면을 '자연의 부드러운 간호사'라고 했다.'

낯선미래제

24. <보기1>은 수면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뇌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보기2>의 사례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2>

- 선우는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을 취했다.
- 재형이는 얇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가지 못하고,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 수민이는 밖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깨어 깊이 잠들지 못했다.

- ① 선우는 수면 상태에서 수민이보다 ㉔가 빈번히 나타났겠군.
- ② 선우는 수면 상태에서 수민이보다 ㉓와 ㉒가 여러 번 나타나겠군.
- ③ 재형이는 수면 상태에서 선우에 비해 ㉓가 자주 나타나지 않았겠군.
- ④ 재형이는 수면 상태에서 ㉓가 나타나는 단계와 ㉔가 나타나는 단계가 규칙적으로 교체되었겠군.
- ⑤ 수민이는 수면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소음이 날 때 ㉒가 활성화되지 못했겠군.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명시적인 근거] <보기 2> 재형이는 얇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가지 못하고,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연결논리] 재형이는 깊은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㉓(세타파)가 나타나는 단계 (1~2)단계와 ㉔(델타파)가 나타나는 단계 (3~4단계 수면)가 규칙적으로 교체될 수 없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명시적인 근거] <보기2> '수민이는 밖에서 소리가 날 때 마다 깊이 잠들지 못했다.', '선우는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을 취했다'
 [연결논리] 선우는 수면 상태에서 수민이보다 깊게 잠들었으므로 ㉔(델타파)가 빈번히 나타난다.

②번 [명시적인 근거] 3문단 2~8행 '수면방추는 세타파 중간마다 마치 실이 감겨 있는 것처럼 촘촘한 파동의 모습인데, 분당 2~5번 정

도 나타나며 수면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K-복합체는 2 단계 수면에서 나타나는데, 세타파 사이사이에 아래위로 갑자기 빠르게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실험에 의하면 K-복합체는 수면 중 갑작스러운 소음이 날 때 활성화된다.'

[연결논리] 선우는 수민이보다 더 깊게 잠들었으므로, K-복합체와 수면방추가 더 활성화되었을 것이다.

③번 [연결논리] 재형이가 선우보다 더 얇게 잠들었으므로, 선우에 비해 ㉓(수면방추)가 자주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⑤번 [명시적인 근거] 3문단 2~8행
 [연결논리] 수민이가 밖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깬 이유는, K-복합체가 활성화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5. 밑글을 읽고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성에서 수면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이다.
- ② 대뇌의 대사율과 혈류량이 최소화되는 단계이다.
- ③ 각성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한다.
- ④ 정신적 피로보다는 신체적 피로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
- ⑤ 수면의 상태이나 정신 활동이 일어나고 뇌 기능에 도움을 준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명시적인 근거] 5문단 7~9행 '자면서도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REM수면은 인간의 뇌의 활동이나 학습에도 도움을 준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명시적인 근거] 2문단 1~4행, '먼저 막 잠이 들기 시작하는 1단계 수면 상태에서는 뇌는 '세타파'를 내보낸다. 세타파란 열〇스 잠을 자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로, 이때는 언제든 깰 수 있을 정도의 수면 상태이다. 이 단계는 각성 상태에서 수면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로~'
 ②번 [명시적인 근거] 5문단 1~2행 '서파수면은 대뇌의 대사율과 혈류량이 각성 수준의 75%까지 감소되는 깊은 잠의 상태이고~'
 ③번 [명시적인 근거] 3문단 '2단계 수면에서는 세타파 사이사이~ 깊은 수면을 유도함을 알 수 있다.'
 ④번 [연결논리] REM수면이 정신적 피로보다 신체적 피로 회복에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TV나 신문 등을 통해 인간의 공격행동과 관련된 사건들을 흔히 접한다. 공격행동이란 타인에게 손상이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진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데, 인간의 공격행동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프로이드(Freud)는 인간은 생존 본능을 지니고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 받으면 본능적으로 공격행동을 드러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달라드(Dollard)는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획득하는 데에 간섭이나 방해 받을 때, 욕구좌절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공격행동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욕구좌절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욕구좌절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공격행동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공격행동이 일어나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 반두라(Bandura)는 인간의 공격행동이 관찰을 통해 학습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주의집중 과정에서는 타인의 공격행동을 관찰하면서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공격행동을 관찰하게 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관찰 대상과 연령이 비슷할수록 그와 같은 행동이 학습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파지* 과정에서는 관찰한 공격행동을 머릿속에 기억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이 관찰한 것을 언어적 기호 또는 영상의 형태로 기억하는 인간의 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다. 이 과정에서는 인지적 시연*이 공격행동에 대한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즉 관찰한 공격행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이를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 것만으로도 기억이 오래 남게 된다. 세 번째 행동재생 과정에서는 머릿속에 저장된 공격행동을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한번 실행해 보게 된다. 즉 관찰된 공격행동을 단순히 따라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과 관찰 대상의 행동을 일치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파지 단계와 마찬가지로 인지적 시연이 반복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과정에서는 공격행동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면서 다음에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동기가 부여된다. 즉 자신의 공격행동으로 무엇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공격행동을 다시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공격행동에 대해 직접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동기가 부여되지만 다른 사람이 공격행동을 한 후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관찰에 의해서도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반두라의 견해는 인간의 공격행동이 드러나는 데에는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인간 내부의 인지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파지: 경험에서 얻은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작용.
 * 인지적 시연: 어떤 행동을 관찰한 후 이를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 것.

26.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비유적 표현을 구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 ②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여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③ 상반된 이론을 비교하여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특정 행위가 나타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다양한 이론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④번 [연결이론] 이 글은 반두라의 관찰학습을 통해 나타나는 인간의 공격행동에 대한 학습 과정을 단계별로 소개하고 있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연결이론] 지문에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②번 [연결이론]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3문단 1행에 '그렇다면 공격행동이 일어나는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일까?' 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는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③번 [연결이론] 이 글은 인간의 공격행동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다양한 이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만, '상반된 이론'을 비교하고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번 [연결이론] 다양한 이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만, 이론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27. <보기>는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초등학교 A 군은 학교 폭력 가해 학생으로, 자신이 폭력 행동을 한 후 자신을 대하는 주변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에 우쭐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자주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한편 A 군은 평소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 영상물과 게임을 즐겼다고 한다. 실제 △△ 청소년재단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폭력적인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접한 후 폭력적인 행위를 자주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흉내 내는 학생이 많았다고 한다.

- ①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이 폭력적인 영상물을 보고 그것을 흉내 내는 것은 공격행동을 재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A 군의 공격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난 것은 파지 과정에서 인지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공격행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의집중 과정을 거치는데, A 군은 평소 공격행동이 학습되기 쉬운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공격행동이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상이 필요한데, 주변 친구들의 태도가 A 군의 공격행동에 동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이 폭력적인 영상물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은 공격행동의 인지적 시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4~7행 '다음으로 파지' 과정에서는 관찰한 공격행동을 머릿속에 기억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이 관찰한 것을 언어적 기호 또는 영상의 형태로 기억하는 인간의 인지 능력과 관련이 있다.
 [연결이론] 반두라의 이론에 따르면, 관찰학습을 통해 공격행동이 이루어지려면, '주의집중→파지→행동재생→동기부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A군은 실제로 행동재생을 했기 때문에 파지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파지 과정에서 인지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10~12행 '세 번째 행동재생 과정에서는 머릿속에 저장된 공격행동을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한번 실행해 보게 된다.'
 ③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1~2행 '먼저 주의집중 과정에서는 타인의 공격행동을 관찰하면서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보기> '한편 A 군은 평소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 영상물과 게임을 즐겼다고 한다.'
 ④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14~16행 '마지막으로 동기부여 과정에서는 공격행동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면서 다음에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동기가 부여된다.'
 ⑤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7~10행 '이 과정에서는 인지적 시연'이

공격행동에 대한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 즉 관찰한 공격행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이를 머릿속으로 그려 보는 것 만으로도 기억이 오래 남게 된다.’

28.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작성한 독서록의 일부이다. ㉠~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글을 읽고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 공격행동의 개념을 알 수 있었다. 요즘 공격행동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 공격행동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였다. 그중 달라드의 견해로 설명할 수 있는 공격행동도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 놀이기구를 타려고 오랫동안 줄을 서 있던 어떤 사람이 새치기하는 사람을 때려서 싸움이 일어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달라드의 견해에 한계가 있다는 글쓴이의 생각도 타당한 것 같다. ㉣ 달라드의 견해로는 자신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은 사람에게 재미 삼아 공격행동을 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대체로 반두라의 견해를 다루고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 관찰된 공격행동이 파지 과정에서 언어적 기호보다는 영상의 형태로 더 잘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보아야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연결논리] 지문 어디에도 ‘파지 과정에서 언어적 기호보다 영상의 형태로 더 잘 기억된다.’ 고 명시되어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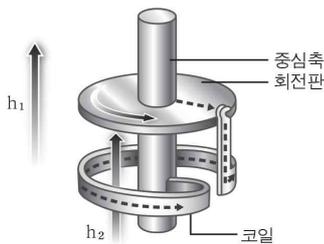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명시적인 근거] 1문단 2~3행 ‘공격행동이란 타인에게 손상이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진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데’
 ②번 [명시적인 근거] 2문단 프로이드, 달라드, 3문단 반두라
 ③번 [명시적인 근거] 2문단 3~5행 ‘그리고 달라드(Dollard)는 인간은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획득하는 데에 간섭이나 방해 받을 때, 욕구좌절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공격행동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④번 [명시적인 근거] 2문단 5~8행 ‘그러나 그의 주장은 욕구좌절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욕구좌절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공격행동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지구가 만들어 낸 커다란 자기장 속에서 살고 있다. 만약 금성처럼 지구에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았다면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전기성을 띤 입자들을 막지 못했을 것이며, 그 결과 전기 입자들이 지닌 높은 에너지로 인해 대기층이 손상되어 생명체의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구의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과거의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고체로 된 영구자석이 들어 있어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고 추측했다. 이를 영구자화설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구 내부의 온도는 물질이 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 즉 '큐리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이 가설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그 이후에 과학자들은 지구의 외핵을 이루는 물질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물질들의 대부분은 전기 전도도가 높은 철과 니켈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외핵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유동적인 액체 상태이므로 지구의 자전 운동에 의해 외핵 내부를 순환할 것이고, 이러한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의 유동적인 순환은 전류 생성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가정과, 전류가 생성되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시스템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의 순환만으로는 전류가 생성될 수 없으므로 전자기유도현상*을 근거로 지구 외부로부터의 자기장이 지구 자기장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림>

이와 같은 지구 자기장 형성 원리를 증명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를 다이나모라고 한다. ㉠ 다이나모는 <그림>과 같이 중심축과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로 구성된 회전판, 전류를 계속 순환시키기 위해 중심축과 회전판을 연결한 코일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중심축을 돌리면 회전판이 함께 움직이게 된다. 이후 <그림>의 h_1 과 같이 중심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1차적인 자기장을 형성시켜 주면 전자기유도현상에 의해 회전판에서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전류는 코일을 따라 흐르면서 코일 주변에 <그림>과 같이 2차적인 자기장(h_2)을 형성하게 된다. 이후 중심축이 계속 돈다면 1차적인 자기장이 없다 하더라도 2차적인 자기장에 의해 전류가 사라지지 않게 되고, 또한 전류가 코일을 따라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2차적인 자기장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지구 자기장의 형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이나모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지구 자기장은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의 순환과 외부로부터 주어진 1차적인 자기장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자성: 자석이 갖는 작용이나 성질.

* 전자기유도현상: 자기장 속에서 도체를 움직이거나, 도체의 주변에서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전류가 생성되는 현상.

29.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지구 외핵을 이루는 주요 물질은 철과 니켈이다.
- ② 큐리온도보다 높아지면 물질의 자성이 유지될 수 없다.
- ③ 전자기유도현상은 지구 자기장의 존재에 의해 증명되었다.
- ④ 과거의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자석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 ⑤ 지구 자기장은 지구로 들어오는 전기성을 띤 입자를 막아준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명시적인 근거] 3문단 11~12행 '전자기유도현상을 근거로 지구 외부로부터의 자기장이 지구 자기장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연결이론] 전자기유도현상을 근거로, 지구 자기장 형성의 원인을 예측했을 뿐 전자기유도현상이 지구 자기장의 존재에 의해 증명된 것이 아니다.

<오답 선택지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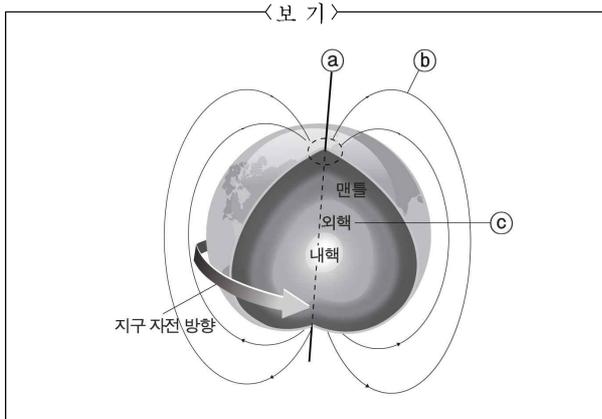
①번 [명시적인 근거] 3문단 1~3행 '그 이후에 과학자들은 지구의 외핵을 이루는 물질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물질들의 대부분은 전기 전도도가 높은 철과 니켈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②번 [명시적인 근거] 2문단 3~5행 '하지만 지구 내부의 온도는 물질이 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 즉 '큐리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이 가설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④번 [명시적인 근거] 2문단 1~2행 '과거의 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고체로 된 영구자석이 들어 있어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고 추측했다.'

⑤번 [명시적인 근거] 1문단 1~3행 '우리는 지구가 만들어 낸 커다란 자기장 속에서 살고 있다. 만약 금성처럼 지구에 자기장이 생성되지 않았다면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전기성을 띤 입자들을 막지 못했을 것이며~'

※ <보기>는 지구의 단면과 지구 내부로부터 형성된 자기장을 나타낸 것이다. 14번과 1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30. ㉠의 구성 요소를 <보기>의 ㉠~㉢와 대응시켜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 | ㉡ | ㉢ |
|---|-----|----------|-----|
| ① | 중심축 | 2차적인 자기장 | 회전판 |
| ② | 회전판 | 1차적인 자기장 | 코일 |
| ③ | 중심축 | 1차적인 자기장 | 회전판 |
| ④ | 회전판 | 2차적인 자기장 | 코일 |
| ⑤ | 코일 | 2차적인 자기장 | 중심축 |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2~5행 '다이나모는 <그림>과 같이 중심축과 전기 전도도가 높은 물질로 구성된 회전판, 전류를 계속 순환시키기 위해 중심축과 회전판을 연결한 코일 등으로 구성된다.' 4문단 10~14행 '이후 중심축이 계속 돈다면 1차적인 자기장이 없다 하더라도 2차적인 자기장에 의해 전류가 사라지지 않게 되고, 또한 전류가 코일을 따라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2차적인 자기장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연결이론] ㉠은 지구의 자전축으로서 다이나모에서는 회전판을 돌게 하는 중심축에 해당한다. ㉡는 지구 자기장으로서 다이나모에서는 코일을 타고 흐르는 전류에 의해 형성된 2차적인 자기장에 해당한다. ㉢는 외핵으로서 다이나모에서는 회전을 통해 전류가 생성되는 회전판에 해당한다.

31. <보기>와 관련지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중심으로 한 지구의 자전은 ㉡가 유지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겠군.
- ② ㉠을 중심으로 한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순환하는 것이겠군.
- ③ ㉡가 형성되었더라도 지구 외부로부터의 자기장에 계속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에서 발생한 전류는 유지될 수 없겠군.
- ④ ㉢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전기 전도도가 높은 것은 ㉡를 형성하는 조건이 되었겠군.
- ⑤ ㉢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순환하고 있더라도 지구 외부로부터의 자기장이 없었다면 ㉢에는 전류가 발생할 수 없었겠군.

<정답 선택지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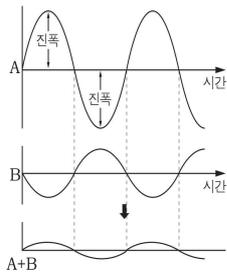
③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10~14행 '이후 중심축이 계속 돈다면 1차적인 자기장이 없다 하더라도 2차적인 자기장에 의해 전류가 사라지지 않게 되고, 또한 전류가 코일을 따라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2차적인 자기장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32~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리는 장애물의 가장자리를 지날 때 회절*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음벽만으로는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 따라서 방음벽 상단의 끝 부분에서 회절되는 소음까지 흡수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방음벽 상단에 별도의 소음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대표적인 소음저감장치로 흡음형과 간섭형이 있다. 흡음형은 방음벽 상단에 흡음재를 설치하여 소음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보통 흡음재에 사용되는 섬유질 재료에는 스펀지의 내부와 같이 섬유소 사이에 미세한 공간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소음과 섬유소의 접촉면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흡음재 내부로 유입된 소음은 미세한 공간을 지나가면서 주변의 섬유소와 접촉하게 되는데, 이때 소음이 지닌 진동에너지를 흡수하여 소음이 진동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소음이 흡음재로 흡수되는 것이다.

한편 간섭형은 소리가 지닌 파동의 간섭 현상을 이용하여 회절음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모든 소리는 각각 고유한 파동을 지니고 있는데 두 개의 소리가 중첩되는 것을 파동의 간섭 현상이라고 한다. 간섭 현상이 일어나 진폭이 커질 경우 소리의 세기도 커지고, 진폭이 작아질 경우 소리의 세기도 작아진다. <그림>에서 A를 어떤 소리의 파동이라고 할 때 B는 A보다 진폭은 작고 위상이 반대인 소리의 파동이다. 만약 어느 지점에서 파동의 위상이 반대인 두 소리가 중첩되면 <그림>의 A+B와 같이 진폭이 작아지면서 소리의 세기가 작아지는데 이를 상쇄 간섭이라고 한다. 반면 파동의 위상이 서로 같은 두 소리가 중첩되어 소리의 세기가 커지는 것을 보강 간섭이라고 한다.



<그림>

간섭형 소음저감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방음벽 상단에서 발생하는 회절음의 파동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이후 방음벽 상단에 간섭 통로를 설치하는데 이는 회절음의 일부분이 간섭 통로를 거친 후, 이를 거치지 않은 또 다른 회절음과 시간차를 두고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간섭 통로의 길이는, 미리 파악한 회절음의 파동과 간섭 통로를 거친 회절음의 파동이 간섭 통로가 끝나는 특정 지점에서 정반대되는 위상으로 중첩되게 조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음저감장치는 회절음과 간섭 통로를 거친 소리의 상쇄 간섭 현상을 활용하여 소음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방음벽에 설치하는 소음저감장치 중에는 회절음의 감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흡음형과 간섭형을 혼합한 소음저감장치도 있다.

* 회절: 소리가 장애물의 가장자리를 지날 때 휘어져 나아가려는 성질. 이로 인해 발생한 소리를 회절음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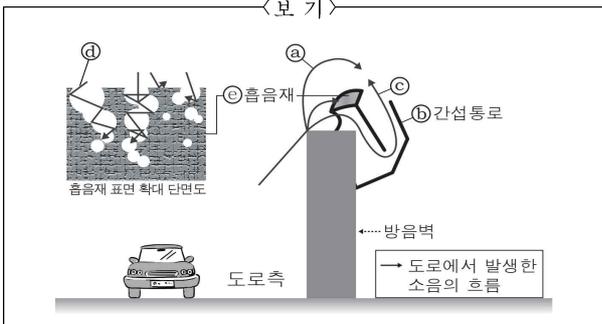
32.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음저감의 원리
— 소리의 상쇄 간섭 현상을 중심으로
- ② 방음벽의 내부 구조
— 흡음재의 재료를 중심으로
- ③ 소음저감장치의 발전 과정
— 소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 ④ 소리의 특성을 이용한 소음저감장치
— 방음벽의 종류를 중심으로
- ⑤ 방음벽의 효과를 높이는 소음저감장치
— 흡음형과 간섭형을 중심으로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연결이론] 이 지문은 '소음저감장치'에 대해 소개하는 글이다. 또한 이 '소음저감장치'를 유형에 따라 '흡음형'과 '간섭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33. <보기>는 흡음·간섭 혼합형 소음저감장치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가 중첩될 때 ㉡와 ㉢의 파동의 위상이 반대이면 소음이 감소한다.
- ② ㉡는 소리의 간섭 현상을 활용하여, 중첩된 소음의 세기를 작아지게 하는 장치이다.
- ③ ㉡의 길이에 의해 ㉠과 ㉢는 시간차를 두고 특정 지점에서 중첩된다.
- ④ ㉠과 ㉣를 동시에 설치하면 방음벽 뒤쪽으로 전달되는 소음의 감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⑤ ㉣ 내부에서 ㉠과 섬유소의 접촉면이 줄어들수록 소음 저감 효과는 더 커진다.

<정답 선택지 해설>
 ㉤번 [명시적인 근거] 2문단 3-5행 '보통 흡음재에 사용되는 섬유질 재료에는 스펀지의 내부와 같이 섬유소 사이에 미세한 공간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소음과 섬유소의 접촉면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연결이론] ㉣ 내부에서 ㉠과 섬유소의 접촉면이 넓어질수록 소음 저감 효과는 더 커진다.

<오답 선택지 해설>
 ㉠번 [명시적인 근거] 3문단 7-10행 '만약 어느 지점에서 파동의 위상이 반대인 두 소리가 중첩되면 <그림>의 A+B와 같이 진폭이 작아지면서 소리의 세기가 작아지는데 이를 상쇄 간섭이라고 한다.'
 ㉡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3-8행 '이후 방음벽 상단에 간섭 통로를 설치하는데 이는 회절음의 일부분이 간섭 통로를 거친 후, 이를 거치지 않은 또 다른 회절음과 시간차를 두고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간섭 통로의 길이는, 미리 파악한 회절음의 파동과 간섭 통로를 거친 회절음의 파동이 간섭 통로가 끝나는 특정 지점에서 정반대되는 위상으로 중첩되게 조절한다.'
 ㉢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3-8행
 ㉣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10-12행 '실제로 방음벽에 설치하는 소음 저감장치 중에는 회절음의 감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흡음형과 간섭형을 혼합한 소음저감장치도 있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정약용 유학 사상의 핵심은 ㉠ 주체의 자유의지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측은지심(惻隱之心)처럼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 도덕 감정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주체의 자율적 의지나 결단을 통해서만 도덕 감정도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나) 선천적인 도덕 감정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정약용은 주희의 논의를 수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선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는 주희로부터 벗어나 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인간에게는 항상 측은지심이라는 동정심이 생기는데, 주희는 이 측은지심이 인간 본성의 실현이라고 강조한다. ㉢ 따라서 그에겐 측은지심이 마지막 결과이고 인간 본성이 원인이 되는 셈이다. ㉣ 이와 달리 정약용은 측은지심을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윤리적 행위의 처음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주희로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 인 지점이다.
- (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성, 권형, 행사가 그것이다. 우선 본성은 인간만이 가진 도덕 감정으로 천명지성(天命之性), 즉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윤리적 경향을 말한다. 권형은 마치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이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갈등상태에서,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말한다. 행사는 주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자신의 선택을 행하는 것이다. 즉 선을 좋아하는 경향에 따른 실천을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의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고 욕망에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본성이 아무리 선을 좋아하더라도, 실제로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 (라) ㉥ 가령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구하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죽는다면 선과 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서, 아이를 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약용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도덕 감정으로서의 본성이 그대로 기능하는 '도심(道心)'이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마음을 자신의 육체적 안위를 우선시하는 '인심(人心)'이라 부른다. 이와 같은 도심과 인심 중에서 주체는 확고하게 도심을 따라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 (마) 정약용은 측은지심과 같은 도덕 감정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다만 그 감정은 윤리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그 도덕 감정이 실천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학 전통에서 정약용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주체의 실천과 관련된 자유의지를 강조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이를 통해 주희가 강조한 내면적 수양을 넘어, 유학을 실천적 책임의 윤리학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34.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정약용 유학 사상의 핵심 내용
- ② (나): 정약용 유학 사상의 발전 과정
- ③ (다): 정약용이 주장하는 마음의 세 가지 차원
- ④ (라): 주체가 따라야 할 마음에 대한 정약용의 입장
- ⑤ (마): 유학의 전통에서 정약용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연결논리] (나)문단은 주희와 정약용의 '측은지심'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관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정약용 유학사상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전했는지 다루고 있지 않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명시적인 근거] 1문단 1~2행
 ③번 [명시적인 근거] 3문단 1~2행
 ④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5~8행
 ⑤번 [명시적인 근거] 5문단 4~6행

35. ㉠에 대해, 주희와 차별되는 정약용의 견해로 옳은 것은?

- 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 ② 주체가 자유의지를 갖게 만든다.
- ③ 주체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
- ④ 선과 악 사이에서 항상 선을 택하게 한다.
- ⑤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명시적인 근거] 5문단 1~4행 '정약용은 측은지심과 같은 도덕 감정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다만 그 감정은 윤리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그 도덕 감정이 실천에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연결 논리] 정약용은 선천적인 도덕 감정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주희의 논의를 수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선이라 보지 않는다. (2문단) 주희와 달리 정약용은 도덕 감정(측은지심)을 윤리적 행위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명시적인 근거] 2문단 1행 '선천적인 도덕 감정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연결논리] '선천적인' 도덕 감정을 긍정하는 정약용은, 도덕 감정이 타고나는 것(선천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주희와 차별되는 견해가 아니다.
 ②번 [연결논리] 정약용 유학 사상의 핵심이 주체의 자유의지를 도입한 것인데, '도덕 감정' 자체가 자유의지를 갖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정약용은 도덕 감정이 윤리적 행위의 처음 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도덕 감정이 실천에까지 이어질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④번 [명시적인 근거] 3문단 9~12행 '그러나 인간은 육체의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고 욕망에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본성이 아무리 선을 좋아하더라도, 실제로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연결논리] 정약용의 인간의 마음에 대한 세 가지 차원 중 '본성'에 해당하는 것은 천명지성(天命之性), 즉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윤리적 경향을 말하는데, 실제로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주희'의 견해에 관해서는 지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⑤번 [연결논리] '주희'의 도덕 감정에 대한 설명에서 찾아낼 수 없다.

36.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기>의 상황에 대해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화재로 건물 전체가 붕괴될 상황에서 대피하던 ‘갑’, ‘을’은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부상당한 ‘병’을 발견한다. 두 사람은 ‘병’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잠시 후 건물 붕괴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갈등에 빠진다. ‘갑’은 결국 생존자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피하고, ‘을’만이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남는다.

- ① ‘갑’과 ‘을’이 대피하던 중에 부상당한 ‘병’을 발견한 것은 도덕 감정에 따른 ‘행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갑’과 ‘을’이 부상당한 ‘병’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은 본성적으로 선을 좋아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 ③ ‘갑’과 ‘을’이 사이렌을 듣고 난 후, 갈등 속에서 결단에 이르는 과정은 ‘권형’의 차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을’이 자기 생명을 우선시하게 되는 육체의 제약을 극복하고 생존자를 구하기 위해 남은 것은 ‘도심’에 따른 선한 행위이다.
- ⑤ ‘갑’이 자신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피한 것은 ‘인심’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명시적인 근거] 3문단 7~8행 ‘행사는 주체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자신의 선택을 행하는 것이다.’
[연결논리] ‘갑’과 ‘을’이 대피하던 중에 ‘병’을 발견한 것일 뿐 ‘선택을 행하는’ 상황은 아니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②번 [명시적인 근거] 3문단 2~4행 ‘우선 본성은 인간만이 가진 도덕 감정으로 천명지성(天命之性), 즉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윤리적 경향을 말한다.’

③번 [명시적인 근거] 3문단 4~7행 ‘권형은 마치 소용돌이치는 물과 같이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갈등상태에서, 주체적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말한다.’

④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5~8행 ‘정약용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도덕 감정으로서의 본성이 그대로 기능하는 ‘도심(道心)’이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마음을 자신의 육체적 안위를 우선시하는 ‘인심(人心)’이라 부른다.’

⑤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5~8행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공동체의 안전 및 질서 유지와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 작용을 ‘경찰작용’이라 한다. 경찰작용이 발동되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경찰작용 발동의 가장 대표적인 요건으로 ‘위험’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위험이란 예측되는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경찰작용의 발동 요건으로서의 위험은 ‘손해’와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을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한다.

그렇다면 ‘손해’와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이란 무엇인가? ‘손해’란 개인 및 공동의 이익이 외부적 영향에 의해 객관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손해는 단순한 불이익이나 부담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단순한 불이익이나 부담이 정상인이 참을 수 있는 범위의 것이라면, 경찰작용이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손해는 정상인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이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고도의 가능성을 말한다. 만일 누군가가 목지 않은 개를 데리고 공원을 활보한다면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작용이 발동될 수 있다. 이러한 손해 발생의 개연성에 관한 예측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경찰작용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그런 이유로 경찰작용의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경찰작용 행사를 제한하는 일반적인 원칙에는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우선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모든 경찰작용의 행사는 법률을 근거로 하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면허를 주는 운전면허와 같은 각종 허가 제도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비례의 원칙이란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公益)과 그로 인해 훼손되는 사익(私益)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에만 경찰작용이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자의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때 얻는 공익이 면허를 취소하지 않을 때의 운전자 사익보다 크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경찰작용이 법에서 정해진 위험 방지작용의 테두리를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만일 영업허가 취소권을 가진 공무원이 친분 관계에 있는 영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와 경쟁하는 다른 영업자의 영업을 취소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다.

3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해를 관련 개념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 ② 경찰작용 행사의 제한 원칙을 나열하고 있다.
- ③ 경찰작용에 관한 상반된 관점을 대조하고 있다.
- ④ 경찰작용의 제한 원칙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⑤ 위협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③번 [연결논리] 이 글은 경찰작용에 관한 '상반된' 관점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작용에 관한 정의와 발동 요건에 관한 글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명시적인 근거] 2문단 2~6행 "손해"란 개인 및 공동의 이익이 외부적 영향에 의해 객관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손해는 단순한 불이익이나 부담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단순한 불이익이나 부담이 정상인이 참을 수 있는 범위의 것이라면, 경찰작용이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손해는 정상인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②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전체
 [연결논리]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다음으로 비례의 원칙이란~, 마지막으로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은~' 이라는 표현을 통해 경찰작용 행사의 제한 원칙을 나열함을 알 수 있다.
 ④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3~4행, 7~9행, 13~15행
 [연결논리] 적법절차의 원칙의 예로 운전면허와 같은 허가 제도를 들었으며 비례의 원칙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자의 사례를 들었고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사례를 들었다.
 ⑤번 [명시적인 근거] 1문단 7~9행 '경찰작용의 발동 요건으로서의 위협은 '손해'와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을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한다.'

38.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찰작용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예측해야 한다.
- ② 경찰작용의 근거가 되는 손해에 대한 판단은 정상인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③ 손해란 외부의 영향으로 공동의 이익이 감소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④ 경찰작용은 단순한 불이익이나 부담이 있어도 발동해야 한다.
- ⑤ 경찰작용은 공익이 훼손되는 특정한 범위에만 한정된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②번 [명시적인 근거] 2문단 4~7행 '단순한 불이익이나 부담이 정상인이 참을 수 있는 범위의 것이라면, 경찰작용이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손해는 정상인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연결논리] '단순한 불이익, 부담'과 '손해'의 구분은 '정상인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기준으로 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①번 [명시적인 근거] 1문단 1~2행 '공동체의 안전 및 질서 유지와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 작용을 '경찰작용'이라 한다.'
 [연결논리] 경찰작용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예측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것이다.
 ③번 [명시적인 근거] 2문단 2~3행 "손해"란 개인 및 공동의 이익이 외부적 영향에 의해 객관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④번 [명시적인 근거] 2문단 4~7행 '단순한 불이익이나 부담이 정상인이 참을 수 있는 범위의 것이라면, 경찰작용이 발동되기 위한 요건인 손해는 정상인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연결논리] 경찰작용의 발동요건은 '손해' 이다. 단순한 불이익이나 부담 손해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지문에 명시되어 있다.
 ⑤번 [명시적인 근거] 3문단 1~2행 '경찰작용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3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 대해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갑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위치한 유흥업소의 영업을 위해 해당 교육장에게 '학교 주변의 유흥업소 영업 행위 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교육장은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인근 학교장에게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받고 심의를 거쳤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교육장은 갑의 유흥업소가 학습 환경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갑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 ① 교육장이 갑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갑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다.
- ② 교육장이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갑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 ③ 교육장이 인근 학교장의 의견을 받고 심의 과정을 거친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다.
- ④ 교육장이 갑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유흥업소가 학습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 ⑤ 교육장이 갑의 사익보다 유흥업소 영업으로 인한 학습 환경 저해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비례의 원칙에 의한 것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명시적인 근거] 1문단 2~3행 '경찰작용이 발생되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하게 되기 때문에'
 [연결논리] 교육장이 갑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갑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더불어 3문단을 보면, '경찰작용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행사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고 하였다.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작용의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②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1~3행 '우선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모든 경찰작용의 행사는 법률을 근거로 하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1~3행
 [연결논리] 교육장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근거로 하여 (학교보건법) 합법적 절차를 밟았다. (인근 학교장에게서~)

④번 [명시적인 근거] <보기>
 [연결논리] <보기>를 확인하면 교육장은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인근 학교장에게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고 심의를 거쳤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교육장은 갑의 유흥업소가 학습 환경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갑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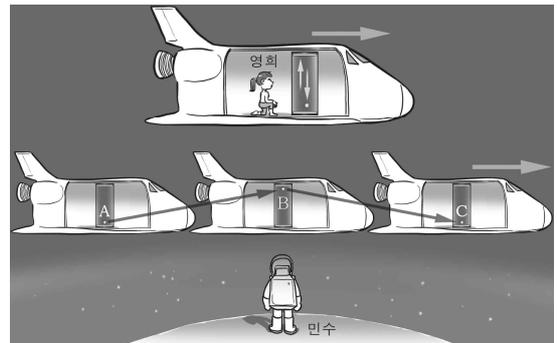
⑤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5~8행 '다음으로 비례의 원칙이란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公益)과 그로 인해 훼손되는 사익(私益)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에만 경찰작용이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0~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물리학에서 시간의 특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창안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다. 그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사슬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고 가정했다. 여기서 '특수'라는 말은 '특별하다'는 뜻보다는 매우 한정된 경우, 즉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이론에서는 '빛의 속도는 우주 어디서나 동일한 상수 c 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설정한다. 만일 당신이 자동차를 타고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다가 차의 전조등을 켜다면, 그 빛의 속도는 시속 100킬로미터 + c 가 아니라 여전히 c 라는 것이다. 즉, 빛의 속도는 광원이나 관측자의 운동 상태와 무관한 범우주적 상수이다.

빛의 속도의 불변성으로부터 얻어지는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동하는 우주선 내부에서 영희가 빛 시계를 관찰하고, 민수는 정지해 있는 행성에서 이 우주선의 빛 시계를 관찰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여기서 빛 시계란 거울을 사이에 두고 빛이 왕복하도록 만든 가상의 시계를 말한다. 만일 우주선 내부에 있는 영희가 보는 빛 시계에서 빛이 한 번 왕복을 했다고 할 때, 행성에 있는 민수의 눈에는 그 빛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일까?



빛 시계에서 빛이 한 번 상하로 왕복할 때 민수의 눈에는 그 빛이 우주선과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관찰될 것이다. 이때 빛은 A → B → C의 경로로 움직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영희가 관찰한 것보다 더 긴 거리를 이동한 셈이 된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전제 조건에 따르면 빛의 속도는 일정하므로 민수는 우주선의 빛 시계가 한 번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을 영희보다 더 길게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면 상대편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것을 시간의 팽창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간 팽창 효과는 물체의 속도가 광속에 견줄 만큼 빨라야 눈에 띄게 나타난다.

4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특수 상대성 이론은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②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는 우주 어디서나 동일하다.
- ③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의 상호 연관성을 전제한다.
- ④ 시간의 팽창 현상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 ⑤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의 흐름은 상대적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명시적인 근거] 1문단 4~6행 '여기서 '특수'라는 말은 '특별하다'는 뜻보다는 매우 한정된 경우, 즉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오답 선택지 해설>
 ②번 [명시적인 근거] 2문단 1~2행 '이 이론에서는 '빛의 속도는 우주 어디서나 동일한 상수 c 이다.'라는 전제 조건을 설정한다.'
 ③번 [명시적인 근거] 1문단 2~3행 '그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사슬처럼 서로 맞물려 있다고 가정했다.'
 ④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9~11행 '이러한 시간 팽창 효과는 물체의 속도가 광속에 건줄 만큼 빨라야 눈에 띄게 나타난다.'
 ⑤번 [명시적인 근거] 3문단 1~2행 '빛의 속도의 불변성으로부터 얻어지는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41. 윗글로 보아,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1971년 물리학자 조지프 하펠과 리처드 키팅은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다음과 같은 실험으로 증명하였다. 우선 초정밀 원자시계 8개를 준비하여 4개는 점보제트기에 실어 지구를 떠다니게 하고, 나머지 4개는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 관측소에 남겨 놓았다. 이틀 동안의 여행을 마친 점보제트기가 착륙한 후 이를 기다리던 과학자들은 탄성을 질렀다. 왜냐하면 ㉠

- ① 비행기에 실은 원자시계들이 관측소의 원자시계와 시간이 같았기 때문이다.
- ② 비행기에 실은 원자시계들이 출발할 때와 달리 모두 멈춰 있었기 때문이다.
- ③ 비행기에 실은 원자시계 4개가 모두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 ④ 비행기에 실은 원자시계들이 관측소의 원자시계보다 빨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 ⑤ 비행기에 실은 원자시계들이 관측소의 원자시계보다 느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정답 선택지 해설>
 ⑤번 [명시적인 근거] 4문단 7~9행 '따라서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관찰자를 보면 상대편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찰되는데, 이것을 시간의 팽창이라고 한다.'
 [연결논리] 4문단의 흐름을 파악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관측소에 있는 과학자들의 관점에서는 점보제트기가 '2일' 동안 운동한 것으로 생각하며, 상대편 (점보제트기)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찰된다. 즉 점보제트기 안의 시계가 더 느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탄성을 지른 것이다.